

# 정읍시, 수제화 기술인력 '청년 슈메이커' 양성

### 청년 일자리 만들기 일환

### 한국제화기술인협회와 협약

### '정읍청년메이커센터' 조성도

정읍시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제화 기술인력인 '청년 슈메이커(Shoe Maker)' 양성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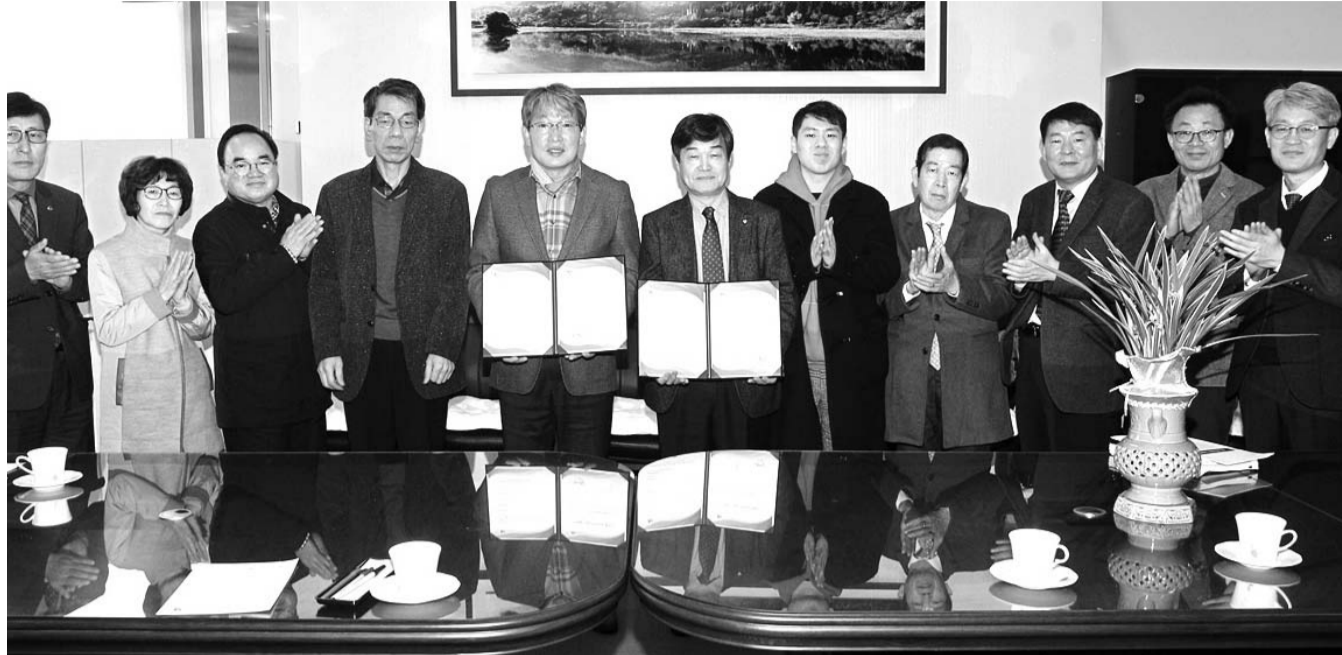
3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유진섭 정읍시장과 박광한(사)한국제화기술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슈메이커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한국제화기술인협회(이하 제화협회)는 서울 성수동 수제화 장인들이 만든 협회다. 수도권 인건비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따른 수제화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시는 실무 능력을 갖춘 청년 수제화 인재를 육성하고 장업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4월부터 올해 말까지 맞춤형 청년 수제화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지난해 12



유진섭 정읍시장과 박광한(사)한국제화기술인협회장 등이 최근 정읍시청에서 청년 슈메이커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일자리 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정읍 청년 메이커 센터 조성사업'을 제출해 선정됐다.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시는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고, 시비를 포함 총 12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청년 메이커 센터

(maker center)를 건립할 계획이다. 청년메이커 센터는 2층 규모로 조성되며, 이 곳에는 기술교육장과 창업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제화 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정읍

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 간 인적, 물적 자원과 정보를 교류하는 등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제화산업과 이를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익산시, 올 상반기 3445억원 재정 집행

익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신속 집행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 예산 6153억원 중 56%인 3445억원을 조기 집행해 시민경제 안정과 지역사회 활성화도 도모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SOC 등 지역의 생활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집행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또 시민안전 확보와 생활 속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농로, 마을안길포장, 농·배수로, 승강장·보안등 설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아울러 긴급입찰제도, 적격심사기간 단축, 선급금 조기지급, 관급자재 구매시

선고제도 활용,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일괄교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등 각종 행정제도를 활용해 목표달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시는 박철웅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실적을 관리하고 관련 사업부서와 협력관계를 구축, 신속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집행을 추진해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위주의 조기발주를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이끌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iy@

# 남원시, '일자리창출 평가' 최우수 선정

남원시가 전북도에서 주관한 '2019년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사업비 1억원을 받는다.

3일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해 고용지표와 취업지원 실적, 일자리 창출 노력도 등 14개 시·군 일자리창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그동안 시는 군부대와의 협약을 통해 제대 후 상근예비역의 취업을 지원하는 '희망시켜주기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또 지리산권 천연물 화장품 원료를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을 확보한 '진

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미취업자의 일자리지원 기반을 마련한 '일자리지원 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 같은 지역특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 노력이 높게 평가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받는 인센티브 1억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시의 일자리창출 노력이 보상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시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 순창군, 대기환경 개선

### 전기화물차도 지원한다

순창군이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을 화물차까지 포함해,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군은 올해 전기승용차 10대, 전기화물차 5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11일까지 지원사업 대상자를 접수받는다.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국비를 포함해서, 승용차는 최대 1500만원, 화물차는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나 사업소제자가 순창군에 등록된 기업이나 법인, 단체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우선 선정한다. 보급대수보다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추첨은 13일 순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고창군, 농업·농촌 6차산업 구축 '고창다섯꺼리 아카데미' 교육



### 판매마케팅 등 특강·사례 발표 전문가 코칭·맞춤형 심화 교육

고창군은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 구축을 위한 '고창 다섯꺼리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지난 27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문을 연 아카데미는 유기상 군수의 특강과 함께 다섯꺼리 교육 계획, 과정별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교육 내용 등을 안내했다. (사진)

아카데미는 '통합교육'과 '분과별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통합교육은 6차 산업 활성화, 판매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특강과 사례발표를 들 수 있다.

분과별 교육은 사전 접수된 농민을 한정해 5개과(먹거리, 볼거리, 잘거리, 살거리, 즐길거리)로 운영되며 농가별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수 코칭·맞춤형 심화교육도 병행된다.

올해로 4년째 이어오는 '다섯꺼리 아카데미'는 각 농가별 맞춤형 코칭교육을 통한 농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김수남 고창농촌관광 팜파사업단 단장은 "고창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6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충분한 가능성과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다섯꺼리 아카데미를 통해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고 적극 발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 군산시,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 '식량산업 5개년 계획' 수립...유통체계화·잡곡산업 육성 등

군산시가 식량산업분야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지원을 위해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3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가 수립할 종합계획은 식량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 소요 검토와 함께 RPC(미국종합처리장) 등 기능을 저하에 따른 비효율 문제점을 분석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군산시의 지난해 미국 생산은 총 식량작물 생산면적 1만6060ha의 74.2%(1만1617ha)에 달했고, 생산량 역시 미국이 84.2%(8만6385t)로 생산 비중이 높았다. 이에 따라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 고품질 군산쌀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유통체계화 방안 및 잡곡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먼저, 지역 RPC 등을 운영하는 7개 농협과 농업 법인 등의 실무 책임자 16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은 식량산업 분야의 발전 방향과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제별 현안과 역할을 발굴해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문영엽 군산시 농산물유통과장은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거점 RPC 중심의 계열화 방안과 타 작물 전환, 잡곡산업 육성계획 등 실효성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과 더불어 오는 11월 식량산업 종합계획 승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되면 관련 국비사업 신청자격을 부여받고,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식량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여수에서 최고 요지 땅 -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 대지 431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 분할매매가능
  - 대출-20억5천만원, 시세/감정가-약 40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3627-8282

